



3 August 2021

**APG Asset Management**

수신: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님

Hong Kong

5<sup>th</sup> Floor, Charter House,  
8 Connaught Road Central

Phone

852-3769-0339

Email

[yk.park@apg-am.hk](mailto:yk.park@apg-am.hk)

**제목: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와 투자자의 우려**

존경하는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PG Asset Management 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투자부를 맡고 있는 총괄이사 박유경입니다.

APG 는 네덜란드계 연금자산운용사로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유럽 등 전세계 시장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021 년 7 월 기준으로 약 850 조의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운용기관으로서 APG 는 특히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투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투자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피해에 관한 뉴스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머지 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에게 훨씬 대규모로 일상화된 재난 상황을 물려주게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인류가 COVID-19 사태가 주는 교훈을 조금이나마 인지하기 시작했고, 기후위기 극복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자로서 평가할 때, 지난 2 년 동안 한국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인 변화를 보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해 10 월 2050 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을 하셨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P4G 국제정상회의 개최,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저감(또는 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실감케 하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 역행하는 중대한 걸림돌과 같은 사업이 아직도 진행중인데, 이는 현재 한국에서 건설 중인 민자 석탄화력발전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총 3 개 컨소시엄 사업자가 발전용량 총

6.3GW 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1 개 컨소시엄(발전용량 1GW)은 최근 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OECD 회원국,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글로벌 리더십을 꿈꾸는 국가, 실질적인 G7 에 해당하는 생산력을 자랑하는 국가, 하지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에너지 및 산업구조를 가진 경제로서, 2021 년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아직도 신규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차마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경제에,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독(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사업자 뿐 아니라 수출로 지탱해야 하는 다른 산업·경제 주체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입니다. 한국계 글로벌 기업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 APG 와 같은 기관에게 이는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사업의 수익성이 아닌 다른 요인들, 즉 여러 계약상의 의무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담, 건설 기성고와 매몰비용 등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민자사업자 가운데는 사업 중단이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중단하고 싶은 사업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 제시를 담당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 사업자들이 석탄발전사업의 함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고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자발전사업자들이 현재 진행중인 석탄발전 사업은 이미 현금창출 가능성이 없는 좌초자산으로서 신속한 중단이 사업자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3GW 마저 가동에 이를 경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2025-30 년을 지나면 낮은 가동율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며, 배출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2030 년 이후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인류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박유경 배상

Yoo-Kyung Park  
Head of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Asia Pacific



APG Asset Management Asia  
荷蘭匯盈投資亞洲有限公司

APG | Asset Management Asia

5/F Chater House | 8 Connaught Road Central | Hong Kong

T. +852 3769 0339 | M. +852 6113 3253 | F. +852 2284 4699

[yk.park@apg-am.hk](mailto:yk.park@apg-am.hk) | [www.apg.nl](http://www.apg.nl)

APG Asset Management Asia provides asset management and advisory services to APG, a pension services provider in the Netherlands.